



인협, 제19회 베이징국제도서전 주빈국 참여 인쇄문화 우수성 홍보 · 110건의 수출 상담 진행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김남수)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5일간 중국 북경의 중국국제전람중심신관에서 중국도서진출구(집단)총공사의 주최로 개최된 제19회 중국국제도서전에 한국관을 조성해 참가했다. 75개국 2000여개사가 참가하고 약 30만 명이 관람한 이번 도서전에 인협은 급속히 성장하는 중국 인쇄 시장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 수집 및 방안을 모색하고, 우리나라의 인쇄 문화와 인쇄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수출 진흥을 도모했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베이징도서전은 중국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다양한 해외 우수 출판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아시아권 최대 저작권 거래시장이자 세계 4대 도서전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아동, 기술, 실용서 분야의 저작권 거래가 증가하고, 풍성한 문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관람객 유치도 적극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세계적인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올해 도서전의 주빈국은 중국과 수교 20주년이 되는 우리나라가 맡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마음을 여는 책, 미래는 여는 문'이란 표어 아래 전시장 W2홀에 1000㎡ 규모로 전통과 현대문화를 조명하고, 다양한 특별전 및 부대행사를 포함하는 한글특별전을 구성했다.

한국인쇄문화종합관 조성·중국어 패널로 홍보

인협은 E2홀에서 36㎡ 규모로 한국인쇄문화종합관을 조성해 청아문화사, 아시아프린팅(주), (주)태신인쇄, 삼아인쇄사, 범일인쇄사, 동호컴뮤니케이션 등의 직접 참가 업체와 18개의 위탁참가업체 제품을 전시했다. 한국인쇄문화종합관은 각각 한국인쇄문화관, 참가사 개별관, 훈민정음 시연 및 목활자 각자 재연 공간, 상담 및 휴게실로 구분해 운영됐다.

한국인쇄문화관에서는 우수 인쇄물 및 위탁 전시 업체의 브로슈어 전시 및 수출 상담, 우리나라 인쇄문화 홍보, 목활자 각자 체험 및 훈민정음 시연 행사 등이 이뤄졌으며, 참가사 개별관에서는 직접 참가 업체들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다. 특히 훈민정음

소개 및 시연, 목활자 각자 재연, 한국 인쇄문화의 역사, 한국 인쇄문화 현황, 세계인쇄문화연표, 협회 소개 등을 중국어 패널로 전시함으로써 중국 현지인들에게 보다 쉽게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쇄문화를 전달하고 관심과 홍보를 유도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쇄문화의 역사와 현황, 주요 수출업체의 명단이 포함된 영문 홍보물, 중문과 영문으로 제작된 한국 인쇄문화 홍보용 리플릿 등을 곳곳에 배치함으로써 인쇄 수출 상담 업무를 도왔다. 아울러 위탁 전시 업체의 홍보물과 전시물을 업체별로 전시, 해외 구매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수출 상담을 대행했다. 뿐만 아니라 훈민정음의 시연행사와 무형문화재 이창석 각자장의 목활자 제작과정 재연을 통해 우리나라 인쇄문화를 적극 홍보했으며, 방문객의 폭넓은 관심을 이끌었다.

1500여 명 방문, 미국·유럽 못지않은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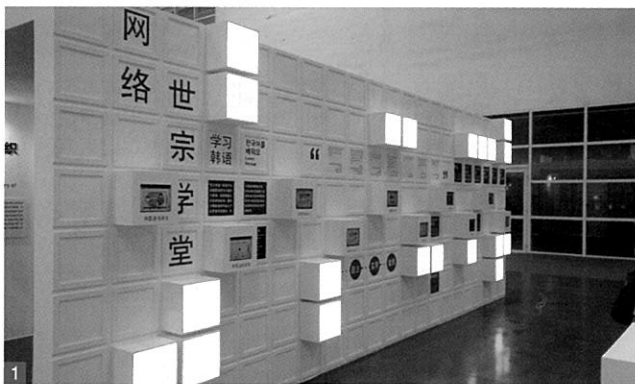
한국인쇄문화관에는 전시회 5일 동안 1일 평균 300여명, 총 1500여 명이 방문했으며, 직접참가업체를 통한 60건 이상, 위탁업체를 통한 50건 등 총 110건의 수출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인협은 이번 베이징국제도서전 참가가 상당건수 및 상담금액 측면에서 미국이나 유럽 전시회 못지않게 실적이 좋았다고 밝혔다.

중국인쇄기술협회와 교류 확대 계획

이번 도서전은 해외 단체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맺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됐다. 중국인쇄기술협회(Printing Technology Association of China), 홍콩인쇄협회(Graphic Arts Association of Hong Kong) 등을 비롯해 메세 뒤셀도르프 상하이(Messe Dusseldorf Shanghai), 리드 익스비션(Reed Exhibitions) 등의 인쇄 관련 단체와 상담하고 향후에도 교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로써 인협은 국가 교류를 통한 인쇄시장 동향 파악에 노력하고, 국내 인쇄시장 적용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8월 31일에는 중국인쇄기술협회가 베이징 소재의 골드바론호텔 888룸에서 주최한 초청 만찬회에 참가, 양국 간의 우의를 확인했다.

이 자리서 장슈양루 중국인쇄기술협회 상무부이사장, 큐데센 상무부이사장, 무문상 전 이사장, 김의천 중국신문출판서 고문 등의 중국 대표단과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을 비롯한 우리나라 참관단은 준비한 선물을 상호 교환하며 교류 확대 계획을 공유했다. ↻



1. 2012북경도서전에 설치된 한국관의 모습 2. 한국인쇄문화종합관에서의 수출상담 모습 3. 훈민정음, 각자 시연모습 4. 중국인쇄기술협회 초청 만찬회